A Study of Nonlinear Structure in Visual Design
1. 서론

2. 비선형적 구조
   2-1. 카오스 및 프랙탈의 개념
   2-1-1. 카오스(Chaos)
   2-1-2. 프랙탈(Fractal)
   2-2. 기계론적 결정론
   2-3. 환원주의적 사고

3. 디자인에 있어서 해체주의적 경향
   3-1. 해체적 디자인의 대두
   3-2. 화자의 해체
   3-3. 선형적 독설(論法)의 해체
   3-4. 그리드(Grid)의 해체
   3-5. 해체 타이포그래피

4. 결론
   • 참고 문헌

(요약)

현대 사회는 서구의 자연과학이 바탕을 둔 환원주의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험론이나 합리론의 바탕 위에 결정론적 세계관이 이루어 왔는데 이것은 일종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결정론에 반기를 들었고, 환원주의적 사고가 대두하게 되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서구의 이성이 해체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견해들은 디자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모던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Abstract)

The modern contains many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by the reductionism based on western natural science. Up until now, it has been formed determinism over the basis of empiricism or rationalism, this can be called a mechanical view of the world. In the field of natural science since 20C, however, raised the standard of revolt in traditional determinism, plural theory headed up.

Consequently, in the name of post modernity, western reason became to deconstruct, further, new theory came to need.

This new paradigm also affected design, and was stud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modern design.

(Keyword)

design, chaos, fractal, deconstruct
1. 서론

서구의 자연과학은 실제론의 토대로 환원주의의 사유방식을 인식론적인 토대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본정신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근거와 인식론적 맥락 방식을 마련해 준다. 근대 과학의 발전에 그 존재론적 근거 논의의 표면에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식론적 근거에 대한 논의는 풍연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철학의 인식론이 정립되면서 이와 아울러 자연과학의 인식론도 그 작업이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경험론이나 허리온은 이론의 차단 뒤에 무기한 무기로 되었고, 그것은 존재론적 차원의 결정론적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임직을 채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론을 말하는데는 반영론적로 환원주의가 가장 적합하다. 또한 존재론적 결정론을 현상 세계에 직접 적용하려는 강한 입장이 따른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자연과학은 이 강한 기계론을 항상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독특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에 의한 미래 사건의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이 예측 가능성을 자연이 결정지었다는 신념이다. 결국 근대 자연과학에서는 결정론, 환원주의의 예측 가능성을, 그리고 점착에 대한 신념이 항상 벌어나고, 자연과학에서의 이성은 현실에서부터 보편화된 연속을 찾아가는 것이며, 이로부터 세계관의 기학적 측면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자연과학 분야에서 양자역학의 등장과 더불어 인문학에서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일어남과 동시에 전통적인 결정론의 사유형식이 혼란스러워졌다. 현실을 단순화시켜 구체 보다는 직접적 인식적 이론의 취득이 제시되며, 이러한 변화는 자연과학의 성과가 장려되면서 연속적 법칙성의 범위가 부정한 것이다. 현대사회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결정론적 세계관은 현재의 트렌드를 드러내게 되었다.

다윈주의와 철학적 상대주의가 대두되었고, 기존의 기학적 정신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포스모디너니라는 이름으로 서구의 이성이 해체되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포스트모던주의의 발전이 지각과 이런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일어났다. 포스트모디니즘의 등장은 지각과 이에 관련된 결정론의 사유형식이 혼란스러워졌다. 현대사회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결정론적 세계관은 현재의 트렌드를 드러내게 되었다.

2. 비전형적 구조

2-1. 카오스 및 프랙탈의 개념

2-1-1. 카오스chaos

카오스chaos는 점시를 나타내는 코스모스cosmos의 반의어로 "혼돈"이나 "무질서"로 번역된다. 이거나 혼란상태라는 뜻을 갖게 하는데, 어질을 찾아 보면 카오스는 그리스 신화나 구약에서 우주의 질서가 합성기에 이르는 무질서의 공허상

2)카오스론 이론 계(系)가 확보한 규칙(결정론적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적이면서 동시에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서 언 미래의 상태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현상.
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카오스학’(chaology)이라는 용어는 18~19세기 신학에서 ‘천지 창조 이전에 존재하던 것’을 연구하는 학문영역을 가리켰다고 한다.3)

위의 카오스는 고전적 의미의 카오스로서, 자기에는 ‘우주의 질서’가 창조되었으므로 이르기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정론적’ 카오스 deterministic chaos라 불리는 현대의 카오스도 단순한 혼동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그 속에 근단한 창조성을 숨기고 있다.

‘결정론적 카오스’는 얼마나 혼란스럽게 보이는 가운데 숨어 있는 무한한 질서를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자기에서 분명한 새로운 구조를 자유롭고 역동적으로 자기조직화의self-organization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결정론적 카오스 현상은 비선형 방정식을 통해서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결정론적 카오스의 비선형성은 바로 결정론과 환원주의의 고리로 근본하는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환원주의는 결정론을 함축하지만 그 역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카오스 이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예전에는 결정론은 완 예측가능성을 의미하지만 카오스 이론에서는 예측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지만 결정론은 예측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명체와 같은 열린 체계를 기존의 환원주의적 탐구방식으로 다루다 해 왔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과학학 수가 등장하게 되었다. 생명과학적의 비정상적, 유기자, synergetics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전 기계화과학의 탐구방식은 기존의 물리학의 한계를 생물학주의적 도구로 해석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4)

현대 카오스에는 이러한 다양한 탐구방식과 밀접한 연계성을 갖게 되었다. 예를들어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과 관련된 인지과학에서

두뇌의 모의구조simulation을 연구하는 과정에서의 전기화학적 현상의 일부는 카오스 현상을 얻어보고자 하여, 인지과학과 카오스 이론은 매우 밀접한 상호 관계의 근본을 묻게 된다.

이하에서 자주적으로 ‘카오스란 어떤 결과가 확고한 규칙(결정론적 벡터)에 따라 변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한 동시에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서 범 미세의 상태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며 있다. 결정론적 벡터의 결정론이란 어떤 계가 움직이는 방향의 규칙이 완전히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와 같은 확률적 불확실성이 들어있어도 전혀 없고 어떤 시점에서의 상태(사태)를 초기값6)이라 한다. 정해지면 원리적으로는 그 이후의 모든 상태가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카오스, 결정론에 따르는 게이어진 정해진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복잡하고 불규칙하면서도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주고 초기값을 정했을 경우 생각해도 그 이후 상태가 변동을 계속하며 변주제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결정론적 벡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은 자연계식이나 우주 상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보면 레논의 적절한 세계관에 깊이 둘러싸여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이한 기교를 갖춘 것도 같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카오스이다.

카오스 연구의 기원은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이 이론은 화학과학과 인공지능의 폭발을 보여주었는데, 단지 과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및 예술 전반에 걸쳐 확장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물리학자로서 카오스현상은 신경학적 방식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비선형적 방식으로서는 성공하고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신경학적 방식에 제한해서 볼 때 그런 현상이 ‘무정서한 혼돈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구조의 모양이 변화 무늬하다고 하지만 어떤 변동성을 찾아내지 못하고, 소용돌이가 무질서한 것 같지만 어떤 방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더 큰 범위의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무질서’ 또는 ‘혼돈’임을 말한다.

따라서 신경학적 방식을 그린 ‘무질서 속의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며, 신경학적 순간도는 예측이 불가능한 혼돈 현상의 예로, 주어진 구성의 두 부분으로 나누었고, 그 두 부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자 생각해보면, 이 공간 속에 N이라고 하는 대단히 많은 수의 분자를 들어 있다면, 각 분자의 결합을 하나하나 따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각 방면에 대해서 입력과 같은 결합의 암을 고려함으로써, 그 법에 들어 있는 분자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두 방향 하나를 거의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들면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초기값’이다.
불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심리에 대한 법칙성에 근거한 예상이 가능하다. 컴퓨터에 의한 모의가 가능한 정도로 설명하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다.

2-1-2. 프랙탈(fracetal)

만델브로프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자연의 해안선이나 수목의 모양, 강의 모양 등을 설명하려 하기 위한 하나의 수학적 이상하에 사용되었다. 원은 라틴어의 형용사 'fractus'에서 나왔으며, 영어의 'fraction'(소분수, 파편, 단위, 분수), 'fracture'(부서지다, 부서져) 등도 같은 어원이다. 보통 윌리엄스의 기하학에 나타나는 정면한 직선과 곡선만으로는 주변의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만델브로프는 코흐곡선7과 같은 기하체를 보이는 곡선군을 도출하면서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형태에 도전하여 새로운 기하학을 세우려고 하였다. 프랙탈은 그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고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프랙탈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유사성, self-similarity라고 하는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형태, 구조, 현상이다. 프랙탈도형은 특이적인 질이를 가지지 않으며, 또한 점선, 점면 등의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뉴턴의 적법에 수리적인 과학의 중심이던 미분을 부분적한 형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프랙탈은 도형, 형태의 문제로 하는 기하학이 아니라, 더욱 넓은 자연현상을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6)

자기유사성은 부분이 전체와 같은 자기유사구조를 가지는 무한한 격자와 구조를 말하는데 이 것이 바로 프랙탈 구조이다. 아무리 작은 수준에서도 전체와 동일한 구조가 존재하는 이 프랙탈구조는 I.2.3차원 등의 정수차원이 아니라 1.4차원 내재는 2.7차원 등의 비정수차원으로 수학화한다. 이러한 비정수차원을 프랙탈차원이라 한다.30)

이 프랙탈 이론은 자연계의 복잡한 동정을 실과 복잡히 묘사해 내는 컴퓨터그래픽에도 응용이되고, 영화의 배경화면 제작에도 사용되고 있다.

2-2. 기계론적 결정론

기계론적 결정론은 뉴턴학파의 핵심이며 그로부터 인식론적 방법들이 도출되었다. 울루메는 인식론으로 인과율을 부정했지만, 그의 말한 자연 중계의 입장은 자세히 보면 자연의 원칙적인 질서를 그 자신이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인과율을 부정하고 자연의 질서체계가 존재하지만 그 체계가 인간 앞에서는 영원히 숨겨져 있다고 한다. 즉 인간 인식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위에서 과학을 오히려 귀납-정리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

 인간의 과학적 이론은 인과율을 절대하지 않는 우연성을 자연자의 본질로서 생각할 수 있다. 서구의 과학적 이론은 우연과 필요성의 갈등 속에서 나타난다. 우연성은 인간의식의 한계일 뿐이며, 자연 자체는 필요성의 끝으로 먹어가결정론적 존재라 보았다.

철학적으로 결정론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사람은 라플라스Laplace였다. 라플라스의 결정론은 정확적으로 구체화하려는 분명한 실정적인 병사음이 있을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기나 그의 원리적인 관객에 대해 아무도 의심한 사람은 없다. 인간의 형태에 대한 라플라스의 입장을 느끼고자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미리 정해졌다는 철학적 근거가 나온다. 따라서 우연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라플라스의 주장이다.

"어느 시점에서 이 자연 안에 작용하는 모든 이들의 행위를 포함하는 자연의 요소와 그 영향을 완전히 인식하는 한, 적절성을 가진 원자와 복잡한 자가 많은 세계 체계를 같은 형식으로 포괄하여, 그에 붙여 통합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과거와 같이 미래도 한 눈으로 볼 수 없다."11)

그의 이러한 결정론은 보통 강한 의미의 결정론 혹은 사각관계를 초월한 초결정론 SuperDeterminismus라고 한다.

20세기 과학이 발전되면서, 특히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인해 라플라스적 결정론은 왜곡되고, 이 결정론을 반박하는 대표적인 주장은 널신보어를 따르는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이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사물의 운동현상의 불확정성은 인식론적 탐구의 결과였지만, 미사게에의 불확정성에 대한 이유는 인식의 한계라 판단하는 자연 과학의

8) 오늘의 도달로, '프랙탈이란 무엇인가' 서울:대우서림. 1982)
9) '20세기과학사편찬회 영문역', 1993, 표 29-29
10) '과학자회', '자보' 서울:한빛, 과학사개역, 1994, p.49,85
11) 주석자, '부분의 합은 전체가 있다', 서울:소나무, 1995, p.45
모습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불확정성 때문에 미래사건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데이빗 보안David Bohm은 비록 인식적으로는 비인식적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결정론적인 자연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보안의 이런 자연관의 의미는 과학적 설명이 내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세계관과 유사하다. 보안은 현상학적으로 무질서로 보이는 듯한 복잡계에서도 그 복잡계에 내재하는 어떤 질서가 형성된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복잡계의 현상적 비인과성은 존재 자체에 기인한다고 보는 인간 인식능력의 한계이다. 즉 인간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현상계에서는 운동을 비판적으로 기술할 수 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존재 자체가 비결정론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12) 다시말해서 인식론적 비인과성이 곧 존재론적 결정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연존재의 결정론적 구조를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로 인해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존재론적으로 결정론의 구조를 갖고 있으나, 과학 인식적으로 인과성이 성립 안되는 현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일상의 자연현상에서단순적인 인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현상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날씨의 변화, 물의 소용돌이, 주사위의 던짐, 수도꼭지의 풍부한 물 등, 이러한 현상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갖는다. 인간과 결과의 일정한 대응이 아닌 것을 우리는 현재 '우연' 혹은 '불가능'이라 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원리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카오스의 논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지식의 신구자인 머스웰 Mawwell의 이야기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해석을 제시해 주고 있다.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의미상의 국단이다. 동일한 원인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으나, 결과 반복되지 않는 세계에서는 원란할 생각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런 임장을 대비하는 불가능한 공리는 다음과 같다. 유사한 원인이 유사한 결과를 갖는다. 이는 우리 동일성에서 우연성으로, 절대적인 연을 다소간 풀듯이 유사성으로 전환했다."

그는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는 잘못된 의미의 결정론 대신에 유사한 원인이 유사한 결과를 갖는다는 뜻의 의미의 결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찾는 것은 자연과학의 최대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상체계에 대한 종론적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하게 통합할 수만 있

다음 결정론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분명한 정보 혹은 분명한 예제 속에서 본다면, 그 결정론적 체계가 사실 운동 혹은 확률적 운동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연적 형태를 바로 결정론적 카오스라고 부른다.

보통 우연과 임연은 조화롭지 않게 나타날 때 간주되었으나, 카오스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다. 카오스가 결정론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모순으로 들리나, 결정적인 것과 카오스적인 것, 결정적인 것과 모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병행에서 이야기하는 우연성은 다음의 두가지 성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차, 현상적인 우연의 요소가 있는 하지만 결정론적 법칙에 따라 행해지는 물리계계가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우연성은 숨겨진 점선 구조의 의의일 뿐이다. 즉 대상들 간의 변화에 있어서 생성하는 현상적 우연성이며, 인식론적으로 그 인간관계의 관을 찾을 수 없을 뿐이다. 그 물리적 우연성은 처음 상태와 결 상태의 관계가 일의적이지 않지만, 그 사이의 모순이 관점은 단순히 놀람 또는 설명이 있는 여_conn 점선이 있다고 본다.

둘째, 대상 자체의 운동이 일반 우연적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그 우연성을 기존의 세계적 수학으로는 기술이 불가능하다.13) 복잡체계에 있어서의 의의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분명한 우연적 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 우연성에 복잡계의 운동은 체계적 구조로 보인다. 이 경우에 복잡체전 현상은 체계적 결정한 성질인데, 인간의 제한된 인식 능력의 부족 때문에.inst. 14) 자연세계의 숨겨진 기하학적 자를 다음에 그 예이다. 예를들어 살아 있는 유기체의 구조를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의 내재적 질서가 있음을 누구나 이는 사실이다.

2-3. 환원주의적 사고

Self-Organizing World


15) 비례, 분명이 우연으로 풍미의 의미는 세계명장이 이전의 상태에 의한 의미이다. 이는 Kuff 혹은 gas라는 말의 어원과 같다. 결정론적 카오스 이론의 현대적 출발은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수학자이며 기하학자인 Lorenz에 의해 시작되었다.

16) 이러한 상황적 변화는 지속할 수 있는 관계는 의미한다. 이 방정식의 이론값은 다양한 변화형태이다. 물론 모든 유의적인 현상을 카오스에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론적 카오스 현상은 모든 변화형태이며, 비선택적 현상 오류가 결정론적 카오스현상은 아니다.

(14쪽 36종, '분명의 은련 첨단미학자', 서울:소나무, 1995, p 52)

(15쪽 36종, '분명의 은련 첨단미학자', 서울:소나무, 1995, p 52)
3. 디자인에 있어서 해체주의의 경향

고리의 이론, 계몽과 그에 의한 진보에 대한 신념, 연속적인 역사, 종체성의 개념들이 거부되면서 서구 화학이상학의 토대가 갈라지는 세계의 중심이로서의 주체가 해체되고 있다. 다른 문부에서 아카이메네이드 사회의 문화의 등속에 포함될 수 있는 디자인은 그 상위의 세계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물질의 명령"으로 인해 디자인 컨텍스테이션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정보의 흐름도 예전의 종속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전 세계, 중심화, 지배화는 그것을 획득할 희망을 잃게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비합리적인 현상을 합리화하려는 행위와 차이점 보다 동일성을 강조하는 행위를 점령 미안, 해체시키는 것이 일종이다. 이러한 생물·자연에서 해체의 현상의 음직임은 주위에서 확인되어 이는 여리 분야에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진화의 시도하에 철학자들이 의해 시작되어 과거의 형식상학적 전통을 부정하고 구조기제, 해석 등과 같은 존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구조가 기초의 내면은 그것들에게 동일성을 부여해 주는 어떤 의미의 중심, 즉 고정된 근원(origin), 진리(truth), 목적(telos), 절대(absolute)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만 보장이고 자취하고 하나의 잔여물이 뿐이라고 한다. 즉 해체주의에 이르는 리얼리즘을 세시하는 의미의 능력에 대한 모든 전통적 가정을 의심하고 테스터는 어떤 안정된 관계성이나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서구의 형식상학이 추구한 전과의 철학개념은 해체하고 모든 결과를 유보시키며 저해적 개념들에 의해 가려져 있었던 사설적 개념을 찾고자 하였다. 이것이 해체주의의 이론은 이론적인 대립을 없애는 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해체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크 페레이다.Jacque Derrida는 이론적 대립을 '폭력적 서열제도'라고 간주하고 이러한 서열은 전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8) 그러나 그 진보는 또 다른 서열제도 아래, 아직도 이양적 대화의 내용을 넘나들면서 서로가 서로의 보충과 대체가 되는 새로운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도록 하였다. 모든 절대적 의미의 근원을 해체하고 모든 결과를 우보시키고자 하며 개념이나 전달 사이의 차이와 현시대의 불확실성, 불안을 드리나로 인정하고자 한다. 다음의 정의는 해체주의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들은 개체의 존재성과 자유를 인정하고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역사를 창조의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자연과 주체를 중요시하고 절대적 진리 또는 지배적 사고를 거부하며 모든 기호와 그들의 재현능력을 분해하였다. 그러므로 해체는 그것을 저하하고 있던 재현가치를 붕괴한 상태로 만들고, 구조의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창출한 것이다.19)

3-1. 해체적 디자인의 대두

최근 몇 년간, 디자인은 적절한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오로지 위반적이든 해체라는 개념에 영향을 받아왔다. 현재 우리는 그 영향에서 매 순간

17) 해체주의는 탈구조주의 이론. 이는 해바라스와 콜스키 등이 구조주의 이론과 실험에 대한 반발로서 탈구조주의로도 실제의 탈구조화로도 철학의 탈구조화하면 의미전신설을 찾아내려는 시도를 거부하였다. 이론의 해체주의는 결국 프라이하 학파가 구조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절대적 질서의 개념을 해율하고 있던 구조, 구조가 탈구조화의 단면에 대한 저항이, 그러한 개념과 같은 향후의 불안정성과 무질서성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며 다양성과 영역을 추구하는 저력적이고, 이러한 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을 일치하여 동시에 해체는 이글린에 의해 반대하였다.
18) 김성문, "탈구조주의의 문학적 의의와 전망,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민음사, 1989, p 20
19) 이광태, "해체주의한 무엇인가?" 서울:교보문고, 1989, p 372
독일의 정보의 소유들이 속에서 해이난 독하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해상을 푸른채로 주는 이론적 배경의 부재와 인식의 부재가 주된 요인일 것이다.

한편의 무대에 주어지는 관심을 확대 채이지 않고, 정보를 허물임이 소비한다. 가치계체도 지주 바뀌고, 지금까지는 명백히 분명되어진 디자인의 정의와 방법이라는 개념도 불가리해진 경계가 혼란지, 궁극적으로는 그 모습을 바꿀 것이다.20)

디자인의 분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타이포그래피의 해석변화이다. 타이포그래피는 그 기초가 언어와 텍스트에 있기 때문에 현대철학의 공동의 도구이자, 문제의식으로 삼는 언어로 대상으로 삼기에 해에 가장 깊은 영향을 받는다.

데리아Jacque Derrida는 그의 저작 "차원"에서 차원difference이라는 남방의 창조를 통해 현실/부재의 경계라는 모순된 개념을 증명하고 있다. 이간이 현존은 동시에 부재임을 이기하고 있다.21) 데리야의 차원이라는 개념은, "언어는 시간적인 과정이라는 사실 역시 존재한다. 내가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그것의 의미는 항상 어느 정도 '연기',시간이 어떤 것이다. 하나의 기록은 다른 기록과 관계라고 한다. 이는 언어의 의미는 나중의 의미에 의해서 수정되어간다. 각각의 기록은 그 기록이 그것이 되기 위해서 배치된 다른 날의 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이전에 사라졌던 것의 혼을 담당하고 있다. 의미의 연대에 있어서 각각의 기록은 다른 모든 기록의 혼을 담당하고 있어서 기록없이 복잡한 작용조직을 형성한다. 의미는 경로 자기 자신과 동일할 수 없다. 기록은 다른 맥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천재적으로 동일할 수 없다. 의미는 맥락마다 다르다. 즉 기рект는 그것이 일어나는 다양한 기록의 연쇄에 의해서 변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전체되어지는 해석적 타이포그래피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탁고 있다. 모든 타이포그래피의 특징이 중심주의와 파문의 강화와 그로 보편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해석적 타이포그래피는 모든 규정된 형식이 아닌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해체주의의 디자인은 양식의 단순한 움직임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대상을 동일하게 다루는 모더니즘의 소유하기 쉬운 커뮤니케이션을 특별한 면을 병목하게 하거나 확장한다. 해체주의의 디자인은 단순한 해시이나 경험을 중요시하는 해시 디자인과 동기적으로 행하던 새로운 도입에 기초한 요소들의 병치(예를 들어 특정한 페이지의 주위에 의해 전체 페이지의 개선이 결정되며, 인상보다는 내용이나 언어로부터, 타이포그래피적으로, 신화와 가려고 움직이기(예를 들어 텍스트 속의 중요한 단어들에 음울을 주는 것인가, 강조하는 것), 그리고 혹은 장식하는 것보다는 논의를 초래하기 위해 의미있게 다듬하하기 그리고 대조하는가 있다.22)

이런 현상은 모던 타이포그래피의 대표적 특징이 둘에 대한 중립성과는 배치되는 형식적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이런 현실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디자인의 새로운 특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현실은 자연스럽게 모던을 끌어당기는 디자인의 본질적인 상황을 생각하게 한다.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객관화되어 있는 문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행위이며, 모던 타이포그래피는 객관화되어 있는 문제를 중립적인 문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3-2. 환자의 해체

 컴퓨터시스템이 등장한 이후로 환자생산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고, 더 이상의 기득권을 누리기 힘들게 되었다. 이것은 어떤 경로에서 보면 환자의 민주화가 대상화에 기인하는 systematically도 있으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까지도 불리 있게 되었다. 둘째, 환자화된 문자체는 언어기호로서의 일부 아니라 시각기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시각이미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는 뜻이다.

"문자는 언어기호로 동시에 시각기호이다. 언어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기호를 가운데 정하고 복잡한 것으로, 음성언어인 말과 문자언어인 글이 있음으로, 문제 내어진 영역으로 알을 찾는 시각적 인물이다. 이로써 하이라시기호로서의 환자의 기호성이 확고히 보장된 것은 인간의 인식에 의해서였다."

"바우하우스와 표현에 있어 오래 지속되어 오래 정각의 우위는 인지매체로 인해 시각의 우위로 자리잡을
하게 되었다. 시각의 우위는 쓰기와 더불어 이미 시작되었으나, 쓰기 혼자만의 힘이로는 충분히 개화될 수 없다. 인쇄는 쓰기 일체가 햇던 이상으로 가치없이 단어를 공간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쓰기는 소리의 세계에서 시각적 공간의 세계로 단어를 옮겨 놓지만, 인쇄는 이러한 공간 속의 어떤 위치에 단어를 못놓아 놓는다.

이 인쇄는 환자고 미디어를 통해 물질감 갖게 만들고, 물질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자체로 의미작용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보다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디자이너는 자신의 의도에 부합되는 의미작용을 하는 또 다른 서구에서는 자신의 심미적 관점에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활차에 요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 디자이너로서의 한 마디의 해체는 legibility와 readability의 대형 구도로 보여주는데, 금서의 명료성이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는 근거 없는 믿음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란 읽는 측도가 내용의 이해를 돕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환자와 가치 있는 성격이나 문장의 디자인적 범위, 그리고 환자의 정립작품 동종 텍스트의 농경을 서구화하는 것이 이해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3.3. 선행적 독법(讀法)의 해체.

기존의 읽는(to read)방법에서 보는(to see)방법으로 독법이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잡지 도 이해는 돼는다는 개념보다는 돼는 개념이 먼저 선정되고 있다. 이 경우 그 화면에 나타나는 철저적인 인상과 이미지가 그 매체의 생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물론 텍스트는 반드시 하나의 돼나는 언어의 최소한의 구성을売り우며, 독서의 목적은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적 독법은 고전 텍스트의 추상적이나 텍스트적 비평적이지만 창작자의 툴구적 신념과 함께 한다. 평온 계에서는 60~70년대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구조주의 철학에서 논리영주주의와 임상 영주주의로 대표되는 이론적 분석이 이러한 해석을 나락으로 내려간다. 구조주의 문학 비평은 한 문학대사의 고전적 의미를 갖는 과학적 방법이라자 쟁점은 분석학은 철학적 기반이 모든 언어 및 의미의 두명한 점을 잘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기구조주의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신념은 분해되기 시작하였다. 즉 나더머의 해석학, 로타의 문학점학, 비판, 마르크스 포스트구조주의 독서, 데미?’시스의 해체주의의 영향으로 상대주의적 그리고 다원주의적 혹은 무정부주의적 모든 신념은 불확실성으로 창조해졌고 이로써 텍스트 입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텍스트의 객관적 의미를 보상할 수 없다는 받아 처여진 입각기요 없이 두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식기는 계약된 금식기에 의해 자신의 의미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텍스트의 의미는 제한된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존재되는 텍스트 를 시각화해야 하는 디자이나 업정에서는 가능한 여러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비선형적 독법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반면은 문장의 반절, 분절, 간접에 의해 좀 더 여러 방향에서 텍스트의 의미에 접근할 것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한다.

3-4. 그리드의 해체.

해체적 정량은 모던디자인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그리드의 해체를 가져갔다. 그리드는 시각적 인 요소들을 구성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의 목적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최상의 그리드는 내용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에 기초하고, 내용의 독립한 개척과 관념적인 요구를 반영한다. 그러나 현재의 개 념적인 면에서 해체의 형식을 결정하는 해체의 논조, 즉 디자이너의 입장이 그리드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디자이너의 형식상의 특정성 공식적 입장에서 동시에 입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3-5. 해체타이포그래피.

해체타이포그래피의 주된 형식적 특징은 화자의 해체, 문장구조의 분명과 간섭, 디자이너의 중점, 디자이너의 인상성과 개인성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들은 관찰의 처음부터 시작해 점차 되로 나가는 형식적인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텍스트를 파악하는 행위보다 시작적이고 다중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것이다. 해체정학은 인간의 적 높은 곳에 있는 절대적인 관리가 있고 그 진리는 현실에 혼란된다는 형이상학의 논리를 언어에 대한 성장을 통해 뿌리부터 뿌 놓았다. 그 과정에 나타나는 것이 "백색"이라는 개념이며, "백색"이라는 개념이 이 개념이 판구소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이러한 시각을 타이포그래피의 측면에서 본다면 의미전달에 있어 진달의 대표는 텍스트에 대해 디자이너의 중락적일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게 된다는 점과 환자는 문자영적 기호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영적 기호로서도 기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활용의 문헌이적이 기호로서의 측면과 시각적이기 기호로서의 측면이 서로 상호효과를 갖도록 조절하는 것과 유연한 텍스트를 보다 다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독자의 사고를 이끄는 것이 디자이너의 역할이자 책임임 것이다.

4. 결론

일반적 이론으로 가는 사고는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이거나 아니면 지나친 기계주의 적이어서 자아 혹은 자아의 표현방식, 그리고 사회 문제와 같은 변화무방한 문제들, 그리고 예술의 무수하고 다양한 표현양식들을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비판은 시대적으로 전향성을 갖고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성에 대한 비판은 근대성의 영원한 해체에 기여하는 미래의 의미로서, 사회적, 계층적, 구조적 변화의 지지자로서, 이렇게 변화의 바탕을 마련한 복잡 구조의 환원주의의 비판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비판, 구상, 벗어나는 작업, 또한 환경운동과 관련된 동양의 자연관 수용, 혹은 생태계 이론과 유기체 이론을 종합하는 시도, 그리고 신체와 대 한 경제적 재해석 작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작업가운데 이론들은 과학주의에 대한 명백한 티어에서, 보수적 혁리주의에 대한 반동에서 나온 것임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인류는 기계적 이성을 포기할 수 있는가? 또한 서구에서 말하는 이성의 해체가 세계의 '슬개진 질서'까지 거부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기계론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나타난 변환주의적 성향을 원론적 결정론을 수정해 나가면서 탄원주의적 철학적 상대주의로 대체해왔다. 그 노력은 holism(27)이므로 동등상상의 수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학적 존재론으로 볼 때 카오스이론은 결정론적으로 흐.getCurrentUser하고 있다. 그러나 카오스이론이 지나고 있는 결정론은 과학적 존재론에서의 결정론이라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식론적으로 볼 때 과학적 결정론은 신학적 결정주의로 연결되지만, 카오스 이론은 비선형적 결정론으로 향해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홍가이. 현대미술/문화비평. 서울:민전사, 1987
2. 김성곤. 탐구주의의 문학적 의미와 전망. 탐구주의의 의미. 서울:민문사, 1983
4. 박이문. 문학과 철학. 서울:인문사, 1995
5. 김형호. 구조주의사의 사색과 계시. 서울:인간사랑, 1989
6. 김형호.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민문사, 1993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 문화 그리고 인간. 서울:고려원, 1993
8. 앨빈 캐런이코스,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서울:신유출판사, 임상훈, 이동훈, 1994
10. 조학선. 한국문학. 1984-9월
11. 헨터 J. 윈.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웅, 임명진. 서울:문예출판사, 1995
12. 이사다 아키라.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서울:재길, 이정우, 1995
13. 스티븐베스트. 디노라스เครือข่าย. 탈현대의 사회이론. 서울:현대미학사, 정일준, 1995
14. 밀라이프생관, 이사벨레드니케. 혼돈으로부터의 천지. 서울:고려원, 신구조, 1993
15. 아바구치 마사야. 카오스와 프랙탈. 서울:천재과학사, 한명수, 1993
16. 오가와 도오루. 프랙탈이란 무엇인가. 서울:대성서림. 21세기과학사리즘연구회, 1993
17. 미치요 가루, 초요공. 서울:길영사, 최성진, 홍원진, 1997
18. 하이젠베르크. 물리학과 철학. 서울:온누리, 구승희, 1993
19. 슬프 천. 카오스. 서울:한국과학백과사전, 1994
23. Laplace. Théorie analytique des Probabilités, 1835
24. F.R.Kreuger, Phisik und Evolution, 1984
26. J.P.Crutchfield, Chaos spectrum der Wissenschaft. 1987,Feb
27. Chuck Byrne & Martha Witte, A Brave New World: Understanding Deconstruction. NOV/DEC. Print